KBS 시 청 자 의 견 일 일 보 고 서 [7.27]

Ⅰ.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3. 7. 26.(수) 06:00 ~ 23:00

○ 상담건수[1]: 848건

Ⅱ. 주요의견 내용

○ 방송 호평(3명)

-프로그램명 :「특집 공영방송은 왜 존재하는가」

-방송일시 : 2023. 7. 25.(화) 1TV (22:00-22:50)

본인은 KBS를 응원하는 시청자이다. 최근 정부가 전기 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기로 했다. 본인은 KBS가 공영방송으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선 수신료를 분리 징수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분리 징수로 인해 방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특집 방송을 통해 수신료가 왜 필요한지 계속 알려주기 바란다.

○ 극본 제언(3명)

-프로그램명 : 일일드라마「비밀의 여자」

-방송일시 : 2023. 7. 25.(화) 2TV (19:50-20:30)

주애라(이채영 분)가 시아버지 남연석(이종원 분)을 회사로 복귀시키기 위해 박 상무를 모함할 계략을 꾸몄다. 주애라가 살인, 절도, 협박 등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설정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드라마를 제작해주기 바란다.

Ⅲ. 청원현황

○ 신규청원

- 4건.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없음.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권익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1) 프로그램 별 인터넷 의견 건수는 집계에서 제외

Ⅳ.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848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2)]	계
406	64	-	-	378	848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378	262	19	-	-	189	848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172	676	-	848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617	8	67	156	848

시청자 의견	문 의
【시사·교양】 ○「6시 내고향」 - 출연자 섭외 제언 ○「특집 공영방송은 왜 존재하는가」 - 방송 호평 ○「다큐 인사이트」 - 방송 호평 ○「더 라이브」 - 방송 제언 ○「해 볼만한 아침 M&W」 - 방송 제언 **【드라마】** ○ 일일드라마「비밀의 여자」 - 극본 제언 **【라디오】** ○「주현미의 러브레터」 - 진행자 호평	**【방 송】** ○「2TV 생생정보」 - '한우국밥' 연락처 문의 37건 ○「6시 내고향」 - '옥수수' 연락처 문의 25건 ○「아침마당」 - '방송 정보' 문의 20건 ○「KBS 뉴스광장」 - '보도 불만' 14건 ○「일일연속극 금이야 옥이야」 - '편성' 문의 11건 **【기 술】** ○「난시청」 문의 6건 ○「수신기술」 문의 2건 **【경 영】** ○「홈페이지」 문의 23건 ○「프로그램 구입」 문의 22건 ○「전화교환」 문의 14건 ○「수신료」 문의 6건 ○「사업 및 행사」 문의 2건 **【기 타】** ○ 한전 문의사항 포함 156건

2)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시사・교양]	
출연자 섭외 제언	ㅇ「6시 내고향」 - 2023. 7. 25.(화) 1TV (18:00-19:00) - 해당 방송을 통해 좋은 식재료를 구매해서 먹곤 한다. 그런데 요즘 들어 연락처 공개가 안 되는 업체가 많다. 가령 며칠 전에도 방송에서 소개한 오이를 구매하고 싶었는데,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아 답답했다. 정보성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연락처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가급적이면 연락처를 공개하는 업체만 소개해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방송 호평	ㅇ「특집 공영방송은 왜 존재하는가」(3명) - 2023. 7. 25.(화) 1TV (22:00-22:50) - 본인은 KBS를 응원하는 시청자이다. 최근 정부가 전기 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기로 했다. 본인은 KBS가 공영방송으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선 수신료를 분리 징수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분리 징수로 인해 방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특집 방송을 통해 수신료가 왜 필요한지 계속 알려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방송 호평	ㅇ「다큐 인사이트」'KBS 현대사 아카이브 발굴, 우리의 기록' - 2023. 7. 26.(수) 1TV (11:00-11:50) (재) - 이날 「다큐 인사이트」에서 굉장히 귀한 내용을 방송했다. 6.25 전쟁 전후를 기록한 영상과 음원들을 최초 공개했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 감사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현대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이런 유익한 기록물을 남겨주어 감사하다. **※의견제시자 : 익명**

의견	세부내용
방송 제언	ㅇ「더 라이브」 - 2023. 7. 25.(화) 2TV (22:55-23:55) - 너무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날 방송을 보니 하단의 실시간 댓글이 사라져 재미가 덜했다. 예전에는 시청자들이 보낸 댓글을 실시간으로 방송 하단에 표기해주었다. 다시 실시간 댓글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의견제시자 : 익명**
방송 제언	ㅇ「해 볼만한 아침 M&W」'무너진 교권?! 지금 우리 학교는?' - 2023. 7. 26.(수) 2TV (07:00-09:00) - 최근 발생한 교사의 죽음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 이날 방송에서도 교권이 무너진 이유를 학생과 학부모 탓을 했다. 반대로 교사 자격 없는 선생님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학생도 많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이 다뤄지지 않아 아쉽다. **※의견제시자 : 익명**
[드라마]	
극본 제언	ㅇ 일일드라마「비밀의 여자」(3명) - 2023. 7. 25.(화) 2TV (19:50-20:30) - 주애라(이채영 분)가 시아버지 남연석(이종원 분)을 회사로 복귀시키기 위해 박 상무를 모함할 계략을 꾸몄다. 주애라가 살인, 절도, 협박 등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설정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드라마를 제작해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의견	세부내용
[라디오]	
진행자 호평	ㅇ「주현미의 러브레터」 - 2023. 7. 26.(수) 2R (09:00-11:00) - 요양병원에서 KBS 라디오를 청취하는 청취자이다. 주현미 씨의 진행이 마음에 들어서, 특히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애청한다.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함께 청취한다. 계속해서 좋은 진행으로 재미있는 방송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